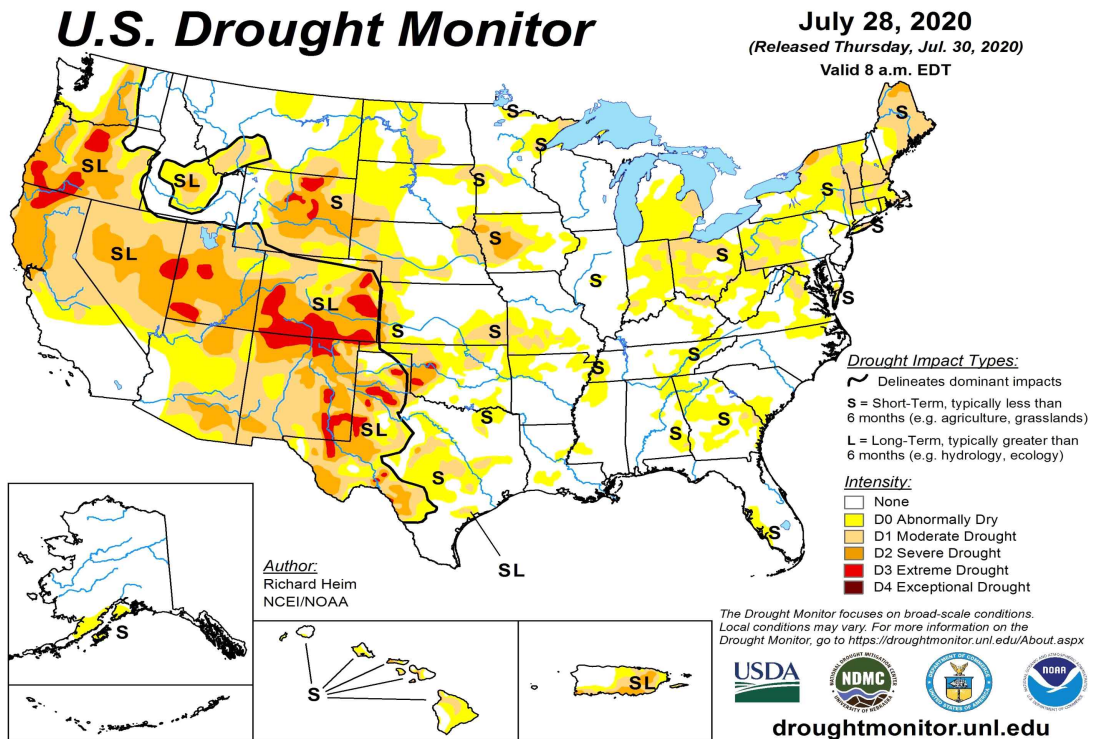


8월 4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7, No. 31)

□ 미국 기후 현황(7/26~8/1)

주초에 허리케인 한나의 여파로 텍사스 남부에 호우가 발생했다. 그 후, 강한 소나기의 중심이 북쪽, 주로 중앙 평원에서부터 대서양 중부까지 뻗어 있는 한랭전선 근처로 이동했다. 한랭전선의 남쪽은 따뜻하고 습한 날씨로 인해 훑날리는 비가 내렸고 작물이 빠르게 발달했다. 일부 더 강한 소나기가 멕시코 연안을 따라 및 그 인근에 내렸다. 일주일이 지나면서 더 차가운 공기가 전선을 따라 평원과 중서부로 퍼졌다. 사실상, 캔자스와 오클라호마에는 주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5° F 정도 낮았다. 중서부 위쪽은 기온이 주간 내내 90° F 이하에 머물러서 옥수수과 대두가 열 스트레스 없이 발달할 수 있었다. 전선 북쪽으로 평원 북부에서부터 북동부까지 대체로 가벼운 비가 내렸다. 그렇지만, 옥수수 벨트 동부에는 가뭄 우려를 완화시킬만큼 비가 충분히 내렸다. 그러나 네브라스카 북동부에서부터 아이오와 중앙까지 눈에 떨 만큼 큰 가뭄 포켓 하나가 계속 머물러 있었다. 그 밖에, 주초에 남서부 몬순과 관련된 소나기 활동이 감소하면서 온도가 급상승했다. 사실, 일주일의 대부분 기간 동안 덥고 건조한 날씨가 서부 지역을 지배하여 소곡류 수확을 도왔으나 토양 수분을 줄였고 방목지와 목초지에 대한 스트레스를 가중시켰다. 워싱턴과 오레곤 주 일부의 기온은 평년보다 5~10° F 높은 범위 안에 있었다. 대서양 중부 주들로부터 뉴 잉글랜드 사이에 있는 여러 곳에서 평균 기온의 수치는 평년보다 최소 5° F 이상 높았다.



□ 농업 현황 요약(7/27~8/2)

전국 동부 및 서부 구역 대부분에 걸쳐서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우세했다. 대서양 중부와 북동부 대부분은 평년보다 3° F 이상 높은 기온을 보였다. 태평양 북서부와 로키산맥 북부 및 남서부의 상당 부분도 평년보다 3° F 이상 높은 기온을 보였다. 아이다호, 오레곤 및 워싱턴에 있는 포켓들은 평년보다 9° F 정도 높은 기온을 기록했다. 대조적으로 국가의 중앙 구역은 기온이 평년보다 눈에 띄게 낮았다. 대평원 대부분은 평년보다 3° F 이상 낮은 기온을 기록했다. 캔자스 중부 일부는 평년보다 6° F 이상 높았다. 서부 대부분은 일주일 동안 건조한 상태로 있었다. 그러나, 대평원, 멕시코 해안 서부, 미시시피 계곡 및 오하이오 계곡 대부분은 평년보다 높은 강수량을 기록했다. 일리노이, 인디애나, 캔자스, 루이지애나, 미주리 및 텍사스 일부에는 일주일 동안 4인치 이상의 비가 내렸다.

□ 세계 기후 현황(7/26~8/1)

■ 유럽: 급성 단기 건조기 최고점에서 발생한 극심한 열이 서부 및 남동부 재배지역의 여름 작물들에게 악영향을 미쳤다. 최근의 시원한 날씨 기간이 지난 후에 서유럽과 남유럽 대부분에 걸쳐서 기온이 섭씨 높은 30도대로 치솟았으며, 프랑스와 스페인의 중앙 및 남부에서 낮 최고 기온이 40° C에 근접하거나 40° C를 찍었다. 생식기-종실비대기 여름 작물들에 대한 열의 영향은 계속되고 있었던 단기 건조와 가뭄으로 악화되었다; 프랑스 서부 및 남서부의 주요 옥수수, 대두 및 해바라기 지역들에서 30일 강수량은 평년의 겨우 10% 미만을 기록했고, 60일 강수량은 지역적으로 평년의 50% 미만이었다. 스페인 남반부 전역에서도 비슷한 건조가 보고되어서 미관개 여름 작물들의 수확량 잠재력을 낮추었던 한편, 생식기-종실비대기 중에 있는 해바라기, 옥수수 및 면화의 관개 수요가 평년보다 올라갔다. 다뉴브 강 하류를 따라 및 바로 남쪽에서 비슷한 조건들이 관측되기도 했는데 단기 가뭄 (30일 강수량이 평년의 10% 미만)과 결부되면서 기온이 38° C로 올라가서 불가리아 동부와 루마니아의 최남단 지역에서 생식기-종실비대기 옥수수와 대두에 대해서 이전에 양호했던 수확량 전망치가 삭감되었다. 한편, 짧았던 폭염과 최근에 있었던 평년 수준 또는 그 이상의 강우가 생식기-종실비대기 봄 곡류와 유지작물에 미치는 잠재 영향을 완화시키기는 했지만, 7월 31일 잉글랜드 남동부 전역에서 낮 최고 기온이 35° C를 찍었다. 그 밖에 프랑스 북부에서부터 폴란드와 발칸 반도 북부까지 산발적인 소나기와 뇌우 (2~25 mm)로 인해 옥수수, 해바라기 및 대두는 물론이고 생식기-종실비대기 중에 있는 봄 곡류와 유지 작물에 대한 수확 전망이 대체로 양호하게 유지되었다.



■ 구소련(서부): 우크라이나 일부에서는 지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우세했지만, 광범위하고 지역적으로 강한 소나기가 생식기-종실비대기 여름 작물을 위해 조건들을 안정화 또는 개선했다. 느리게 움직이던 한랭전선으로 인해 흑해 연안에서부터 서러시아 대부분에 걸쳐서 북동쪽까지 10~90 mm의 비가 내렸다. 그 결과, 비록 최남단 재배지역 (북카프카즈 구역과 최인접 지역들)에 있는 여름 작물들은 7월 상반기 중에 이글거리는 열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수확량 손실을 입었지만, 러시아는 7월 초 폭염과 건조에서 계속 회복되어 생식기 (북부) 및 종실비대기 (남부)에 있는 옥수수와 해바라기는 유익을 얻었다. 그러나 러시아 서중양부 나머지 전역의 여름 작물 전망은, 특히 중앙 구역 (주요 옥수수 생산지)에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대체로 7월초의 과도한 열을 피했던 우크라이나에서는 소나기와 뇌우 (2~40 mm)로 인해 생식기-종실비대기 중의 옥수수, 해바라기 및 대두에 대한 조건이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유지되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서중부와 몰도바 북부에서는 건조한 날씨 (5 mm 미만)가 계속되어 표토 수분을 지역적으로 제한하여 작물의 수확 전망을 다소 진정시킬 수 있다. 일주일간 평균 기온은, 최대 기온이 대부분의 주요 재배 지역들에서 35° C 이하로 유지되었지만, 평년보다 최대 2° C 높았다.

■ 동아시아: 중국 북동쪽에 다시 소나기가 내려서 생식기 옥수수와 대두에게 아주 필요했던 수분이 공급되었다. 초기 생식 단계 중에 좋지 못했던 때에 건조와 열이 발생한 이후에 내린 10~50 mm 이상의 비가 대부분의 현에서 작물에 대한 스트레스를 완화했다. 그러나, 어떤 지역에서는 강우 이후에도 기온이 평년보다 최대 4° C까지 계속해서 올라갔다. 게다가, 길림 서부에서는 더 건조한 날씨 포켓 하나가 옥수수 수확량 잠재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더 남쪽으로 북중국 평원에 내린 소나기 (25~100 mm)가 옥수수와 기타 여름 작물들에게 유리한 토양 수분을 유지해주었다. 양쯔 계곡과 대부분의 남부 성들에서 비슷한 강우량이 발생했고, 양쯔 계곡 아래쪽에서 홍수가 줄어든 것으로 여겨지는 중에 그 지역은 여전히 과습한 상태를 유지했다. 다른 곳에서는 한반도와 일본 대부분에서 강한 소나기 (50~200 mm)가 보고되어 벼와 기타 여름 작물들의 수분 공급을 상승시켰지만 국지적인 홍수를 일으켰다.

■ 호주: 호주 동부에서 소나기 (5~25 mm, 지역적으로 50 mm 가까이)가 광범위하게 내려서 퀸즐랜드 남부의 밀 및 기타 겨울 작물들에게 필요한 표토 수분을 상승시켜주었다. 그 비는 뉴사우스 웨일즈의 겨울 곡류와 유지작물들에게도 혜택을 주어서, 대부분의 주에서 작물 상태가 양호하게 유지되는데 도움이 되었다. 반면 빅토리아와 남호주에는 대체로 건조한 날씨 (5 mm 미만)가 우세하여 겨울 작물이 이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이 더 줄었다. 영양기 겨울 곡류와 유지작물의 발달을 촉진하려면 이 주들에 비가 더 내리는 것이 좋을 것이다. 서호주에서는 산발적으로 내린 비 (5~15 mm)가 밀 벨트의 남부와 서부의 밀, 보리 및 캐놀라에게 유익을 주었지만 북부와 동부 지역은 더 건조한 날씨로 뒤덮였다. 서호주는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2~3° C 높았고 호주 남부와 동부는 평년과 비슷했다 (평년의 2° C 이내).

■ 아르헨티나: 서부 생산 지역에서 밭에 필요한 수분이 제한적이기는 했지만, 맑은 하늘이 겨울 곡류의 발달을 도왔다. 이따금씩 몇 차례 내렸던 소나기들 (대체로 5 mm 이하의 강우)을 제외하면 전국의 주요 농업 지역이 완전히 건조했다. 주간 평균 기온은 평년 부근 또는 그 이하였고 낮 최고 기온은 부에노스아이레스 남부의 높은 섭씨 10도대에서 차코와 포르모사 인접 지역의 중간 30도대 사이에 있었다. 차코 같이 먼 북쪽은 밤 최저 기온이 -5° C까지 기록되었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7월 30일 현재 옥수수는 96% 수확되어 작년보다 7 포인트 앞섰다. 밀과 보리는 각각 96% 및 93% 파종되었다. 겨울 곡류는, 코르도바에서 파종 최종 단계를 위해서 추가 수분의 필요성이 주목되기는 했지만, 대체로 양호한 상태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 브라질: 브라질 중부와 남부의 주요 생산 지역의 조건은 옥수수와 면화의 건조와 수확에 유리했다. 리오 그란데 도 술과 북동부 해안을 따라서만 총 5 mm의 이상의 비가 내렸는데, 몇 곳에는 25 mm 이상을 기록했다. 주간 평균 기온은 평년 수준 가까이 또는 평년 이하였다; 파라나와 리오 그란데 도 술에서는 낮 최고 기온이 대체로 섭씨 낮은 20도대에서 높은 20도대 범위에 있었다. 남부 생산 지역에서는 밤 최저 기온이 5° C 이하로 떨어졌지만, 서리는 지역의 작물들이 서리 피해에 민감하지 않았던 리오 그란데 도 술에만 내렸다. 파라나 정부에 따르면 7월 27일 현재 2차 작물 옥수수는 26% 수확되었고 남은 작물의 82%는 성숙기에 있었다; 밀의 절반 이상이 성숙기에 도달했기 때문에 몇 주간의 건조기 이후 추가 수분이 환영받을 것이다. 대조적으로 리오 그란데 도 술의 밀은 7월 29일 현재 생식기에 도달하지 못했다. 한편, 7월 31일 현재 마토 그로소에서는 옥수수와 면화가 각각 94% 및 40% 수확되었다.